소리판 뒤흔든 여성 소리광대 삶 그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혜숙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 '비비각시' 장편 '금파'로 새롭게 출간 역사 모티브에 상상력 가미

국악인이자 가수인 송가인은 이 소설에 대해 "금파의 애절한 소리가 슬픔을 타고 올라 힘이 되어주니, 음악인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가운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리의 영과 한이 오롯이 살아나 한 편의 아름다운 가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소리광대의 삶을 다룬 소설에 대한 송가인의 평이 눈길을 끌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이기 때문에 송가인의 평은 예사로 다가오지 않았다. 어쩌면 소설 속 주인공의 기구한 삶은 저마다 길은 다르지만 다양한 인생을 사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대변하는 것인지 몰랐다.

지난해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5000만원)을 수상했던 김혜숙 소설가의 장편 '금파'가 출간됐다. 당시 수상작품 제목은 '비비각시'. 그러나 출판사에서 주인공의 역동적인 삶을 부각하기 위해 소설 속 주인공 이름 '금파'를 책 제목으로 바꾸자고 권유했다.

당초 작품 제목이었던 '비비각시'는 유랑녀, 즉 떠돌아다닌다는 여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작가로 하여금 판소리꾼이 꿈이었던 한 여성의 신산한 일생에 관심을 갖게 했을 터였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16) 출신이기도 한 김 작가는 "소설에 배경으로 나오는 동리정사(신재효의 집)를 비롯해 모양성은 어린 시절 많이 다녔던 곳이라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작가는 "동리정사 출신은 허금파 이전에 진채선이 있었지만 워낙 진채선이 유명한 나머지 허금파는 잊혀졌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작가에 따르면 허금파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고창으로 이주한 것으로 돼 있다.(아마도 이것도 허구일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상상력은 빈 공간을 파고든다. 역사의 기록 한 줄에서 또는 한 단어에서 모티브를 얻어 상상의 집을 짓기 마련이다.

"금파가 소리를 위해 모든 것을 끊고 고창 동리정사에 왔지만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어요. 지역의 세도가 주 영감이 추근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리정사에 후원을 끊거든요. 소리선생인 세종은 외모와 재주가 뛰어난 금파를 아낍니다. 어느 날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무대에 오를 소리꾼을 가리기 위해 소리 경연을 열지만 금파는 명단에 오르지 못합니다. 금파는 주 영감이 모종의 손을 쓴 것은 아닌가 예상을 하게 되지요."

소설은 묘사가 생생하고 서사 전개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소재는 물론 등장인물을 작가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설적 상상력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고창이 고향인 아버지가 소리꾼이었다"는 말이 돌아온다.

김 작가는 "비록 부친이 무명 시조창 꾼이었을 망정 예술가로서의 삶은 그 자체로 존중해 드리고 싶었다"며 "사실은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슴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가 판소리에 관한 소설을 쓰리라 작정한 것이 5년 전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다고 한다.

김 작가 외에는 '금파'라는 소설을 쓸 수 있는 소설가는 없을 것 같다. 대체로 모든 작가에게는 자신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어느 날 문득 찾아오기 마련이다. 오래도록 내면에 드리워져 있던 모티브가 부지불식간에 '발효과정'을 거쳐 구체화되는 경우다. 김 작가에게 허금파의 소리인생이 그런 작품일 듯하다.

'이날치' 보컬인 안이호는 추천사에서 "'금파'는 정말 고마운 작품이다. 이야기를 위해 존재를 내던진 이들을 온전히 이야기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김해숙 소설가와 '금파'에게 이야기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찬사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문단에 나온 김 작가는 소설집 '유리병이 그려진 4번 골목'을 펴냈으며 2017년 '어쩔 수 없다'로 한국소설가협회 신예작가에 선정됐다. 현재 학원을 운영하며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자연·무형으로 분류

구례 화엄사 4사자 3층석탑(국보 제35호)

지난 60년간 통용돼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된다. 또한 국가유산 분류 체계도 문화·자연·무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고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이번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은 문화재 용어가 지닌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자는 취지와 맞물려 있다. 또한 문화재 정책범위 확장은 물론 시대변화와 미래 가치를 반영해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랐다.

현행 문화재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운용해 제정됐으며,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뿐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의 보편화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했다.

언급한 대로 이번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를 포괄한다.

또한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자연·무형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기준과 정합성을 높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하자는 의도다.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속하며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명승이 포함됐다.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변경된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유형유산, 등록유산으로 바뀌며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개선안과 관련 지난 3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76.5%와 전문가 91.8%가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성에 찬성했다. 국가유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도 국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0대 중년 모티브 인문학 강좌 열린다

광주시민인문학 '50+ WELL alone 관계의 인문학'

중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저마다 다르고 임의적이다. 이 시기에는 심리적, 생리적 변화로 자신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자각을 하게 된다.

50대 전후 중년을 모티브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삶을 조명해보는 관계의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광주시민인문학(광주시 북구 자미로 66번길 7)은 '50+ WELL alone 관계의 인문학'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매주 월요일·오후 7시 30분)이며 총 20회.

강좌는 '비교인문학', '예술심리학', '저자 직강', '리얼리티 인문학', '사생학', '인생학' 등 모두 5개 분야로 나눠 펼쳐진다. '50+ 일반시민'이 주 대상이며 20명 내외 선착순 모집한다.

먼저 중년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관계의 미학-한일여성문학을 중심으로'는 5월 2일부터 시작된다. 명혜영 박사가 '개강식 및 박완서 '소묘'-권력의 바통터치', '오바 미나코 '세 마리의 게'-주부의 일탈'(9일), '최정희 '제2여자의 풍경'-세넌트 버진'(16일), '우노 치요 '행복'-진정한 행복이란?(23일)를 강의한다.

이어 안정선 심리센터장이 '거울 속의 내 모습, 나 조차도 부담스러워'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이진 소설가가 '50+ 소설가 이진의 나의 삶 나의 서사'를, 서명원 박사가 '나는 누구인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우동필 박사가 '메멘토 모리-죽음으로부터 삶은 가치 있게 시작된다'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문의 010-4624-1201.

한편 광주시민인문학은 90기 정기 강좌도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월~금요일 오후 7시 30분) 연다.

위상복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 신우진 이사장, 진정한 이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헤겔철학, 문학이론, 영화, 젠더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펼쳐진다. 토요일(오후 2시)과 일요일(오전 9시)은 각각 '영화로 읽는 페미니즘', '23회 전주국제영화제 참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 있음, 기수별·강좌별 등록.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플루티스트 김서현, 칼 닐센 국제음악콩쿠르 2위

오덴세 심포니 오케스트라상·주니어 심사위원 특별상도

플루티스트 김서현(21·사진)이 10일(현지시간) 덴마크 오덴세에서 폐막한 칼 닐센 국제음악콩쿠르 플루트 부문 2위를 차지했다고 금호문화재단이 11일 전했다. 김서현은 오덴세 심포니 오케스트라상과 주니어 심사위원 특별상도 받았다.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 덴마크 출신 작곡가 칼 닐센(1865~1931)을 기리기 위해 1980년 창설된 대회로 만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김서현은 2위 상금 1만 유로(약 1300만원)와 특별상 상금 2천 유로(약 260만원)를 받게 된다.

8살에 플루트를 시작한 김서현은 2013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다. 2015 마루 국제 플루트 콩쿠르 우승, 2017 고베 국제 플루트 콩쿠르 특별상 등을 받았다.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스위스 취리히 필하모니아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중이다.

한편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채(25)는 이번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3위에 올랐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서울대를 거쳐 현재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 재학 중이다.

이 대회 역대 한국인 수상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고(故) 권혁주(2004년한국인최초 1위)·홍의연(2004년 3위, 2012년 4위)·이지윤(2016년 공동 1위)·박수현(2016년 공동 4위)·송지원(2016년 공동 4위),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2013년 3위), 오르가니스트 김진(1994년 4위)·박소현(2004년 3위) 등이 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꿀꽈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한 국 기 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